

# 농림부의 농·축·인삼협동조합 개혁 각계 의견수렴 거쳐 마련된 통합법안 주요골자

농림부는 지난 3월8일 농·축협 통합 등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각계의 의견과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4차례 논의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통합협동조합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8일 발표한 당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일선조합의 통합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경제권, 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자율 추진토록 하므로써 농업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합장 선거제도는 현행 직선제와 간선제 이외에 이사회 호선방식을 추가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일선조합이 경제사업 위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통·가공시설 등을 집중지원하는 한편, 중앙회의 사업을 이관받거나 중앙회와 공동경영할 수 있도록 조합의 특별출자제도를 마련키로 하였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와 인삼협중앙회는 당초 방침대로 통합하고,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경제 전담, 축산경제 전담, 신용사업 전담 부회장(대표이사)제를 도입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여 각 부문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일부에서 주장한 신용사업 분리(별도 은행화)는 협동조합의 지도, 경제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다.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 입법추진 과정에서 구체화시키기로 하였

다. 신용사업의 건전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지않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규정을 대폭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일선조합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경영평가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였다.

농림부는 이와같은 통합법안을 지난 4월중에 관계부처 협의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 입법예고 등 입법추진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보완대책 마련

농림부는 3월8일 농·축협 등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지난 한달여 동안 도 및 시·군단위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과 전문가·관련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다수 농민들과 농민단체·학계전문가 등이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협동조합개혁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3월8일 개혁방안 발표이후 66개 농업관련 및 시민단체가 지지성명을 발표)

이와 함께 정부의 개혁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농림부는 이와 같이 제시된 의견을 모아 각계 대표 27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에서 4차례의 논의를 거쳐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마련하였다.

## 일선조합을 경제사업 위주의 조합으로 육성

우선, 일선조합은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그리고 업종별 농협 및 업종별 축협으로 구분하여 각 조합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강구하

도록 하였다. 지역조합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농업인 욕구를 해결토록 하고, 전문 지도사를 배치하여 경영상담 및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며, 조합별로 농·축산물의 생산·출하조절 기금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기능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업종별 조합은 품목 특성에 맞는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품목별 전문조합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규모가 큰 조직에는 자체 기술연구소도 설치하여 조합원의 고급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일선조합 합병은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 경제권·생활권 단위로 신축적으로 추진**

일선조합이 수지맞는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모화, 전문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나, 단기간에 급격히 합병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함께 우려되었다

### **건전한 조합이 다수의 부실조합과 합병할 경우 동반부실화 우려**

따라서 조합합병은 경영평가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자본이 완전 잠식된 조합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조합장 선출방식은 조합원 자율로 결정하되, 조합장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책임을 강화**

현재의 직선제·간선제로 되어 있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이사회호선제를 포함시켜 조합별로 조합원의 의사와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장의 업무집행방식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직을 단순 명예직으로 하고, 실질적 업무는 상임이사에 맡기는 방식과 조합장이 업무집행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식 중에서 조합 자율로 선택토록 하되,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업무소

홀 즉, 경과실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되어있는 조합장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집행 조합장에 대한 이사회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였다.

### **농·축·인삼협중앙회는 통합하되, 각 부문별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농협, 축협, 인삼협을 통합하여 (가칭)농업인 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각 부문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농업경제사업전담, 축산경제사업전담 그리고 신용사업전담 대표이사를 각각 두고, 소관업무를 집행·대표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총괄 대표하되, 부회장이 전담하는 업무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지도·교육·정보 및 농정활동 등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중앙회의 사업방식은 회원조합과의 공동출자·공동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조합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의 비대화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회의 합리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 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앞으로 계속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당사자인 농·축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화 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지도·감독권 보완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건전화,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규정을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폭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은행법 등 법규위반시 6월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문책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 지급보증금 등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일선조합에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설치·운영하여 1년에 1회 이상 조합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자본을 잠식하여 조합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설립인가의 취소, 업무의 정지, 합병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제도도 대폭 보완하였다.

<제공 :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 1999. 4. 13>

## 덴마크 한국고민 봉우의 편지 .....

(前略) 저는 이곳 덴마크에서 30년간 살아오고 있는 한국 교민으로서 양봉의 꿀벌 생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양봉현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일전에 조도행 선생님의 저서 “양봉사계절 관리법”을 입수하여 읽고 조선생님께 편지를 띄워 한국의 양봉협회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렸던바, 고국의 양봉협회장님께서 양봉협회보를 보내주시고, 우리나라 양봉업계의 일면을 알게하여 주시니 감사한 말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 덴마크양봉협회 회원으로서 덴마크 내 양봉업계 현실을 다소 알고 있는 편으로 덴마크 양봉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기에 모국의 양봉업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덴마크인들은 천성적으로 협동심이 강한 국민성으로 이곳 양봉가들 또한 양봉협회 운영을 매우 활기있게 해 나가고 있으며, 회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양봉업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생산물의 증가를 꾀할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 양봉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더욱 돈독히 하여 우리나라 양봉가들

의 긍지가 커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9년 4월 29일 덴마크에서 안창현.

### ◇1999년 2월21일, 조도행 선생께 보낸 편지

(전략) 덴마크는 여름이 짧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기후조건이 나쁜데도 전업 양봉가들과 취미로 꿀벌을 치는 부업 양봉가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 나라 양봉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협회를 통하여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 항상 머리 속에는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양봉협회에서 발간되는 회지가 있을 것으로 믿사운데, 그 구독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수 없고, 또 협회의 활동사항 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공해와 연관된 우리나라 양봉업의 장래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양봉업계 장래를 위하여 많은 지도를 해주십시오. (中略)이곳의 시차는 한국보다 8시간 늦으니 그곳의 밤 12시는 이곳에서 오후 4시가 됩니다.

<주소= HOJRISVEJ 16, 8240 RISSKOV, DENMARK 전화&팩스= 86-174584>